

**2004 Young Generation Forum 개최**



포럼참가자들의 기념촬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俞始中)에서는 7월 5일부터 10일까지 Young Generation Forum을 미국 28명, 독일 5명, 영국 5명, 일본 6명, 캐나다 8명, 호주 4명, 중국 4명, 러시아 7명, 중앙아시아 3명, 프랑스 3명 등 12개국에서 73명과 국내 37명 등 모두 110명의 청년 과학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2004 YGF는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들과 국내 전문가들간의 21세기 과학기술 비전에 대한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내외동포 전문가들간에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첨단 과학기술의 상호 교류에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번이 3번째이다. 7월 6일부터 이틀간은 캐피탈호텔에서 '미래 유망 프런티어 분야'와 '한민족 청년과학기술도 네트워크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며 이외에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가졌다. 7월 7일 오후 5시에 강창오 (주)포스코 사장, 김상권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사장, 이운우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 이희국 LG전자 전자기술원장을 초청하여 각기업의 경영철학을 듣고 젊은 과학도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 CEO/CTO Forum 및 Dinner 자리도 있었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현대자동차 및 POSCO 등의 산업시찰과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면서 좀더 국내 산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각국의 젊은 과학도들의 패기와 이상을 진취시키고 문화가 다른 각국의 젊은 과학도들과의 과학기술을 교류하고 민족의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조선족 과학기술자협회와 과기용어통일사업 협의**

지난 6월 2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박택규 부회장(건국대 명예교수)은 중국 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손동식 회장(전 연변대학교 총장)과 중국 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임진호 비서장(현 연변과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박택규 부회장, 손동식 중국조선족 과학기술자협회 회장, 임진호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원장

과학기술대학 부원장)을 만나 과총에서 진행하고 있는 남북과학기술용어집 편찬사업을 설명하고 앞으로 남북간의 과학기술협력과 과학기술용어통일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1회 나노포럼 개최**



나노기술촉진법에 근거하여 나노기술 분야에서 국가적·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나노기술연구협의회(회장 임한조 아주대교수)는 7월 16일(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회관 지하 1층 제2회의실)에서 '나노기술연구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2004년도 제1회 나노포럼을 개최했다. 나노기술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미래원천기술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체계적인 나노기술 연구개발 정책을 마련하고 나노기술이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이번 나노포럼 행사에서 각분야 나노기술 전문가들의 토의를 통해 한국 나노기술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공계인력에 평생 지원방안 마련**

과학기술부는 7월 9일(금)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안은 지난 3월 공포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안은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육

성·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작성한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의 취업촉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상태의 이공계인력을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하거나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핵심이공계인력에 대한 평생지원을 위하여 재직중에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이 시행령안은 앞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러플린 박사 KAIST 총장 취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러플린(Robert B. Laughlin, 54) 박사가 7월 1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KAIST는 이날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 임 관 KAIST 이사장, 홍창선(열린우리당)의원, 염홍철 대전시장 등 주요 인사와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러플린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는 러플린 총장의 부인 애니타와 아들 2명 등 가족들도 참석했다. 그는 양자물리학의 세계적 대가로, 양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분수 양자 홀 효과(Fractional quantum Hall effect)를 이론적으로 처음 설명한 공로로 98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5월 28일 열린 KAIST 임시 이사회에서 제12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개최식 개최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학생단 323명을 비롯하여 총 600 여명의 본 대회 참가자와 포항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6일(오전 9시 ~ 10시 40분)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식을 가졌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개최식에서 행한 축사를 통해 기초 과학의 발전과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회에 참석한 각국 과학영재들에게 "여러분의 뛰어난 재능과 끊임없는 탐구가 조국의 발전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7월 16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17일 19일 양일간 이론 및 실험경시를 실시하며 21일에는 한국의 과학도들과 본 대회에 참여한 외국 과학도들이 서로의 창의력을 겨누는 포스코 창의력 축제를 비롯하여 노벨상 수상자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아이,로봇>배 '한·일 휴먼노이드 로봇 격투 대회' 개최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주최 한일로보원위원회 주관 <아이,로봇> 배 '한·일 휴먼노이드 로봇 격투 대회'가 7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

었다. 로봇격투대회는 초기단계로 첨단 지능을 가진 로봇기술과 엔터테인먼트성을 접목한 인간형 로봇의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에서 4개팀, 일본에서 4개팀이 모여 친선으로 게임을 벌였으며, 한·일간 로봇기술대결의 현주소를 가름한 좋은 기회였다. ㉠

정리\_ 이재성 기자 jsl@kofst.or.kr